

인불학부지도 (人不學不知道)

교육의향

노영필
철학박사



“공부 잘 해야 면서기 하더라.”

한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다. 공부에 관심없는 사람의 질투어린 말일까. 공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일까. 공부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의미라면 꼭꼭 도록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아냥일테다.

그나마 요즘에는 더 안 맞는 말이다. 대학원까지 코피 쏟으며 공부해도 9급 공무원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세상이다.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공부는 곧 취업이다.

공자는 공부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남달랐던 공자는 묻고 또 묻다가 나중에는 자기에게 오히려 물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했다. 공부의 달인으로 성현이 된 셈이다.

오늘날 아이들이 하는 공부는 진학이고 취업이다. 아이들에게 물으면 열이면 열이 하는 대답이다. 공자가 말한 궁금한 것을 알아가는 공부, 인격을 연마하

는 것과는 너무 다른 태도다. 아이들이 지켜워할 수밖에 없는 공부인 이이다. 놀기보다 공부를 싫어하는 생존 경쟁에서 허우적대기 싫은 것이다.

놀면서 재미나게 공부할 수 없을까? 공자가 말한 묻고 찾는 공부는 없을까? 공부가 삶을 윤기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 여우의 거짓말같은 이습우화가 일상인 세상, 듣기 싫고 속이고 속이는 힘을 길러야 생존할 수 있다는 세상에서 진짜 공부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힘을 키우는 일이다. 윗프게도 현실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

비극은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때다. 거짓말이 참말처럼 통하면서 거짓말이 뻔뻔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는 chat-gpt나 AI의 힘을 빌려 쉽게 할 수 있지만 참과 거짓말을 분별하는 양심적인 힘은 사람 몫이다.

옛날에는 모르고 하는 거짓말은 나쁘지 않다고 했지만 거짓말은 모르고 할 때 더 위험한 세상이 됐다. 거짓말 속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참말이다. 일상의 버릇을 넘어 정당화논리로 굳어진 거짓말은 정말로 나쁘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정상인데 아이러니다.

필자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육불

탐불성기, 인불학부지도”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육은 다듬지 않고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고 도리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거기다 한술 더 뜬 것은 포기문화의 확산이다.

공부가 다듬는 일이 아니라 성취의 수단이 되면서 사람이 갖춰야 할 도리와는 상관없어진 셈이다. 9수 10수로 고시를 통과했지만 무슨 가치를 지향하고 무엇을 공감하고 살아야 할지는 필요없어진 최종성취가 공부를 정의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진 이유다. 권위주의 시대의 통제와 억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참과 거짓을 배울 수 없는 공부를 강요하는 세상이다. 더 큰 거짓말을 막기 위해 국가권력까지 동원되면서 당당하게 거짓말로 덮어도 된다는 것은 교육의 실종을 예고하는 것이다.

면서기를 비아냥대지 않는 세상, 장사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 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고 채워가는 삶을 살도록 뒷받침해주는 사회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육을 쪼아 그릇을 만들듯 공자처럼 되물으면서 올바른 가치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힘을 키워 옆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불줄 알아야 한다. “인불학부지도”의 힘을 키우려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사람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일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5호의 귀환 캡슐(오른쪽)이 내이멍구(内蒙古)자치구 동펑(東風)착륙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이날 우주인 장루(張陸)가 지구에 무사히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스시스

서석대



“군쟁 중에서 어려운 점은 먼 길을 곧은 길로 삼고, 근심 거리를 이로움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길을 구불구불 가는 것처럼 하여 적을 이익으로 유인하면 나중에 출발한 군대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니, 이는 우직지계를 안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병법’ 군쟁편에 나오는 말로, 누구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으니 이럴 때 위기를 잘 넘기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

이환위리(以患爲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내야수 황대인(27)이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다. 황대인은 지난달 29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돼 2군으로 내려갔다. 타격 부진 때문이다. 올시즌 볼 박이 1루수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응하지 못했다.

2015년 2차 1라운드 지명으로 KIA 타이거즈에 입단한 황대인은 거포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으나 잦은 부상과 군 복무, 포지션 문제 등으로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하다 지난해 주전 1루수로 자리매김하며 첫 풀타임 시즌을 보냈다.

황대인은 지난해 12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6, 14홈

런, 91타점, OPS 0.716을 기록했다. 타율이 낮았지만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냈다. 특히 찬스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생애 최다타점을 기록했고, 나성범(97타점)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타점을 생산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황대인도 자신감을 보이며 올시즌을 맞이했다. 하지만 36경기 타율 0.212, 3홈런, 18타점, OPS 0.583으로 부진했다. 장타율 0.314에 출루율은 2할대(0.269)에 불과했다. 4월 타율 0.219로 타격 난조를 보이더니 5월

에도 타율 0.200으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1군에 머무를 수 없었고 재정비 시간이 필요했다.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은 “스윙 메카닉이 좋지 않고, 상대 투수와의 수 싸움도 안 되고 있다”며 황대인을 2군으로 보냈다.

올시즌 남은 경기가 아직은 많다. 2군에서 다시 시작하는 황대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환위리’ 정신을 되새기며 긍정 마인드와 컨디션을 되찾길 기대해 본다.

최동환 문화체육부장 cdstone@jnilbo.com

社說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어촌은 뭘 죄인가

천일엽·굴비 등 직격탄 눈 앞

전남은 양식장·어선·수산물·천일엽 생산량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최대 산지다.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있다. 이런 전남 어촌이 요즘 삶 자체를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앞에 절망하고 있다. 바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때문이다.

원전수 방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민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사색이다. 십수 년째 영광군 염산면에서 천일엽을 채취해 온 한 어민은 “이거 남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바다에 못 붓게 해야 한다”고 절규한다. 그도 그럴 것이 천일엽은 바닷물을 태양·바람 등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굴비 외에도 김치·간장·된장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다. 제조 특성상 오염수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일본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유해 물질이 발견된다면 그 즉시 천일엽 업계는 붕

괴될 수 있다. 이미 불안감은 현실화 되고 있다. 소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천일엽 사업장에는 전국적으로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다. 십 수 년치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곳도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일본은 ‘오염수가 정화시설인 알프스를 거치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담수화된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은 걸러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유해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연하게도 바다는 경계선이 없다. 물고기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한다. 한 곳이 오염되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남의 바다가 아니라 우리 바다가 당장 죽게 생길 판이다. 그런데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다 못해 ‘막는 시늬’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도대체 어민들이 무슨 죄이며 우리 국민은 뭘 죄라고 이웃의 오물까지 뒤집어 써야 하는가. 답답하기 그지 없다.

민주당, 새로운 정치 위한 변화 필요하다

광주시당, 입당원서 놓고 갈등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돈 봉투 의혹’부터 ‘김남국 코인’까지 잇따라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광주시당에서 신규 당원 입당원서를 둘러싼 갈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국민의 뜻을 살피고 민심을 좇아야 할 민주당의 혼돈이 안타까운 일이다.

당장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입당인지를 밝히도록 한 광주시당의 지지후보 명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대리 접수과정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가입하는지 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지지후보 명시는 전국에서 광주가 유일하다고 한다. 입당시 지지후보를 먼저 밝히려는 것은 비밀선거 원칙과 정치적 자유에 어긋나고, 결국 현역에게만 유리한 조치라는 게 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광주시당은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유령 당원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민주당의 지향점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검찰이 수사중인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표적이다. 거역의 코인을 보유하고 상임위 활동 중 이를 거래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차명 보유 등의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진보라고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냐’는 현역 의원의 발언 또한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망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 후보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면 쇄신이라는 민주당의 기치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많은 지역민들은 지금의 민주당에 뼈를 깎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의 시작은 새로운 변화에 있고 변화는 새로운 정치가 만든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온갖 퇴행에도 왜 민심을 얻지 못하는지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 도덕성의 기준을 재확인하고 공천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노력이 그 첫걸음이다. 정치의 목표도 재정립 해야 한다. 과연 정치를 통해 국민의 가치와 이익을 지켜왔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